지 않을 것이다. 최후에 원만을 이룰 때면 표면적인 장애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서 공(功)이 척 오기만 하면 한순간에 해결된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민감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제자: 사부님께서 변이(變異)된 사회와 변이된 인류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더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사부: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양인이거나 서양인이거나 고대 그때의 사람, 그들의 사상, 행위와 사회의 존재 방식은 완전히 지금과 같지 않았다. 신(神)도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생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에도 발전과정이 있게 마련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국은 수많은 조대(朝代)를 거쳤다. 비록 옷차림이 개변되어 매 왕조(朝)가 다 같지 않았지만, 그들 사람의 관념, 사람으로서의 사상, 그들이 사회에서 종사한 일체 일들, 그것은 진정한 사람의 생활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가. 이 사회는 마치 아주 발달한 것 같은데, 모두 지금의 과학이 가져다준 것이다.

그럼 신은 왜 인류사회의 변이를 허용했는가? 이 문제를 말하게 되어 관련되는 것이 특히 크므로 나는 깊게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간단하게 몇 마디로 개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주 중에는 구(舊)세력이 있다. 이 구세력,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아주 이지적인 사람, 主意識(주이스)가 아주 강한 사람이 연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만약 가족 중에 정신병 병력이 있다면 당신들은 주의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정신병이 있다면 연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신병 환자는 흔히 그의 主意識(주이스)가 또렷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당신을 제도하지 않는다고 탓할 바가 못 된다. 나의 이 법은 主意識(주이스)에게 주는 것이며 이 사람을 제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 이 사람은 오히려 또렷하지 않은데 법을 누구에게 주겠는가? 당신이 정신병에 걸렸을 때에는 당신의 업력, 좋지 못한 사상, 외래의 생명인데, 우리가 그것에게 줄 수 있겠는가? 줄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이다. 그러므로 가족 중에 정신병 병력이 있는 사람은 연공함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자신이 자신을 파악할 수 없다고 느끼면 당신은 참가하지 말라.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당신이 연공장에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으며 또 법회에 와서 법을 듣지도 말라.

제자: 어린이가 열두 살인데 그는 매주 한 번씩 수련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설법을 듣습니다. 그가 연공하고 법 공부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사부: 어린이는 어린이의 상태가 있다. 만약 그가 법을

만났고 또 배우고 있고, 연공하고 있다면 사실 그도 수련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는 어린이와 어른에 대해 엄격한 구별이 있다. 어린이는 어른의 그런 관념, 복잡한 사상으로 구성된 것이 없고 아주 간단하므로 법을 얻기만 하면 빠르다.

제자: 제 머릿속에서 좋지 못한 일을 생각할 때 다른 공간에서 좋지 못한 물질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부: 당신은 되도록 좋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수련하도록 하라. 생각했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상관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 당신이 두려워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집착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되도록 법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아 자신의 순정(純淨)한 심태(心態)를 유지하는 것이 비교적 좋다. 하지만 완전히 나쁜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해낼 수 없다. 오로지 당신이 원만에 이르기 전이라면 당신은 전혀 해내지 못한다. 그것이 어떤 것을 생기게 하는지에 대해 말한다면 당신은 수련하는 사람이기에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천상에서는 수련하는 사람, 당신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당신들은 신(神)으로서 원

해야 하는가? 남은 것은 고생을 좀 많이 겪어야 한다.

또 하나, 일부 사람은 자신이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놓지 않고 아주 깊이 감추고 심지어 당신이 의식했음에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집착하는 것을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피해버리고 더는 생각하기 싫어한다. 당신이 포기하려 하지 않고, 포기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수련하려 하는데, 내가 보기에 당신은 또 될 만한 그릇이라 수련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알게 해야 한다. 당신이 늘 그런 상태에 침체하여 있다면 난(難)은 크게 마련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이 한 가지 상황이다. 바로 인위적으로 자신이 자신에게 번거로움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련 중에서 여러분의 신체 변화는 사람마다 모두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뚜렷한 것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각이 뚜렷하지 않아 어떻게 해도 느끼지 못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자. 당신이 미시적으로 천지가 뒤집어지듯이 얼마나 큰 변화가 발생해도 당신 표면의 신체는 후천적인 변화로 완전히 민감하지 않고, 마비되어 전혀 감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다. 하지만 표면적인 신체가 어떻게 좋지 않게 변하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모두 당신의 수련에 영향 주지 않으며 진도도 다른 사람에 비해 뒤처지

제자: 저는 자신이 끊임없이 고비를 넘기고 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여태껏 신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부: 우리 아주 많은 수련생이 많은 고생을 겪었고 확실히 치른 대가와 겪은 고생은 다른 사람에 비해 크다. 이 속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예전에 빚은 업력이 실로 너무나도 크거나 혹은 더욱 큰 나쁜 짓을 했다. 당신이 당신 이 한 세(世)에 당신은 모른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이런 일을 갚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는가. 당신들이 대법을 수련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책임진다. 나는 또 당신을 수련하여 제고하도록 하고 나는 또 당신으로 하여금 원만을 이루게 해주고도 나는 또 당신에게 당신이 이런 일을 했다고 알려줄 수 없는데 당신은 오히려 나에게 어찌하여 이러하고 어찌하여 저러한가 (물론 나는 질문한 이 수련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례를 들어 이런 일을 말할 뿐이다)를 묻는다. 그럼 당신이 말해 보라.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당신이 고생을 겪고 괴로움을 겪는 것을 보고 있으며 나도 정말로 당신을 위해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말해서 없애버린 것들이 이미 무척 많다. 사부가 당신에게 없애주고 당신을 대신하여 감당한 것이 이미 무척 많아서 더 제거해 주면 안 되는 것으로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만에 이르면 장차 미래의 부동한 층차 중의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그러므로 일단 당신들이 속인을 초월하고 당신들 몸에 속인을 초월한 것을 갖고 있을 때면, 더욱이 정법 중에서 수련할 때면, 단지 내가 당신을 책임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 신체 주위에는 정말로 천룡팔부(天龍八部)가 호법(護法)하고 있다. 다만 당신들 자신이 모를 뿐이다. 많은 사람이 연공만 하면 담이 커지는데 무엇 때문인가? 단지 당신들 자신의 요소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에게 알고 있는 그 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담도 커진 것이다.

제자: 어려서부터 매우 부끄럼을 타는데 이는 아주 강한 집착심입니까?

사부: 사람으로서 염치가 없다면 그는 바로 몹시 나쁜 사람이라고 나는 말한다.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당신이 이런 것을 집착한다면 당신은 곧 사람이다. 그러나 예전에 많은 사람이 연공한 후부터는 몸가짐도 제멋대로 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게 했다. 만약 대법제자가 이렇다면 내가 말하건대 당신은 대법에 먹칠하고 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떠한 장소에서든 내가 당신들에게 설법할 때, 나는 상대적으로 말해서 내가 좀 더 단정하게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나는 당신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배우고, 나의 생활방식을 배우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것에 아주 주의하며 당신들에게 좋지 않은 자세를 남겨놓을 수 없다. 당신들은 속인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한다.

나는 한 가지 상황을 보았다. 중국인은 겉모습을 너무 중시하지 않고 비교적 함부로 한다. 마치 내가 저번에 말한 농담처럼, 중국인은 내포를 아주 중시하고 머릿속에 풍부한 것이 있으며 온몸에 남이 못하는 재간이 있고 요리도 아주 맛있게 한다. 그러나 그의 겉모습은 지저분하고 더럽다. 하지만 백인은 어떠한가. 내가 당신들에게 농담하는 것으로 치자. 백인이 만든 것은 중국인이 만든 것보다 맛이 없다. 그러나 그 칼이며, 포크를 아주 가지런하게 놓고 어떤 것을 먹는 데는 어떤 식기를 쓰고 무엇을 마시는 데는 어떤 컵을 쓰는지를 따지면서 겉모양을 아주 중시하고 아주 예의가 바르다. 이것이 백인과 중국인의 차이점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 만약 그것을 용합(容合)시켜 중국 사람은 교양을 좀 중시하고 백인에게는 내포가 좀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박수)

백인은 그들의 교양 있는 행동을 아주 중시하는데, 이것이 그들의 문화이다. 어떤 때 왜 백인이 당신들에게 화를 내는가? 어떤 사람은 까닭 없이 또 당신들에게 화를 낸다고

이면 백이 그가 가지고 있는 예전의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서 당신이 그의 원인을 조사해 보라. 그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절대로 감히 올 수 없다. 우주 과거의 생명이든, 우리가 지금 바로잡은 일체 생명이든 모두 지켜보고 있다. 당신은 오로지 마음이 바르지 못하여 비로소 이런 사악한 것을 초래하였다. 마음이 바르다면 누구도 감히 오지 못한다. 정말로 온다면 그 뭇 신들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를 어떻게 바로잡아 줄 것인지에 관해서는 그가 명백해지도록 하자면 오로지 마음을 내려놓고 법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일단 자심생마하면 스스로 깨닫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이 말할수록 그는 더욱 역으로 나아가며 그도 명백해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역시 방법이 없으며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누구도 더는 그를 상관하지 말고 그에게 시장을 주지 말며 마치 이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가 재미없다고 느낄 때면 아마 냉정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에 대하여 이미 심한 파괴를 조성한 사람은 영원히 다시 법을 얻을 기회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장래에 반드시 그 죄악을 갚아야 한다. 이는 그 자신이 원인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자비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면의 법을 나는 거듭 말했다.

사부: 번역, 이 일은 모두 하고 있다. 연공 테이프 중에서 번역된 구령을 부가한다면 내 생각에 좋지 않다. 마치 '부처(佛)'라는 이 용어처럼 서양인들은 예전에 부처라는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다. 바로 어떤 것은 번역할 수 없다. 하지만 연공 테이프 속의 해설은 번역해도 괜찮다. 그 '結印(제인)', '合十(허스)' 등등 이러한 것을 당신이 번역하기만 하면 그것은 그러한 일이 아니며 그것은 그의 원래의 뜻(原義)을 잃는다. 그러므로 이런 용어는 번역할 수 없다.

제자: 어떻게 하면 자심생마(自心生魔)한 수련생을 도와 수련의 큰 길을 걷게 할 수 있습니까?

사부: 우선 내가 말한다면 그는 좋은 수련생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련을 잘한 수련생은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대법에 대해 확고하기가 반석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 이것이 그를 교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가 보기만 해도 두려워한다. (박수) 그것이 그를 움직인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으므로 전혀 그를 감히 다치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역시 이러한 사람은 사상 중에 문제가 있다. 특히 외부에서 온 것이 그의 사상 중의 집착을 이용하여 가상으로 교란한다. 이는 백

느낀다. 만약 당신이 그의 문화를 파괴한다면 설령 조그마한 일일지라도 그들은 정말로 대단히 화를 낸다. 많은 사람이 사소한 일에 주의하지 않는다. 예컨대 백화점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에 사람이 들어오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쾅" 닫아버리고는 당신은 가버린다. 만약 그가 백인이라면 그는 대단히 화를 낼 것이며 당신이 그의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그는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는다. 그에 대한 당신의 예의 없는 행동과 언행에 대해 그는 몹시 화를 낼 것이다. 당신들은 남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므로 이러한 면에 좀 주의해야 한다.

제자: 저는 중국에서 온 수련생입니다. 이번에 사부님을 뵙게 되어 눈물을 한없이 흘렸고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부: 당신들이 보기에는 내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최근 이 반년 이래 여러분을 반복해서 만나므로 마치 아주 수월한 것 같다. 그러나 중국 대륙에는 그처럼 많은 수련생이 있지만, 나를 만나지 못하여 그들은 사부를 아주 그리워하고 있고 나도 그들을 염려하고 있다. 바로 이러하다.

제자: 각 공간에 모두 제가 존재한다는데 이 각 공간은

삼계(三界) 내에 있는 것입니까?

사부: 맞다. 삼계 내에 있다. 삼계 내의 공간 역시 아주 복잡한 것이다. 장래에 기회가 있으면 내가 당신들에게 물질의 구조를 더 말해주겠다. 그 복잡한 정도는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하다. 하지만 또 그것을 형용할 언어가 없고 그리자 해도 그려낼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때 내가 당신들에게 설법하면서 사람의 언어를 다 써도 우주의 위대함을 표현하기가 정말로 어렵다.

제자: 듣기로는 중국과학연구 부서에서 팬더를 복제한다고 합니다.

사부: 바로 클론,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당신들은 이런 일을 상관하지 말라. 인류는 자신을 훼멸하고 있다. 그날 나는 인류가 이것을 복제하고 저것을 복제하는 것을 말했다. 일단 인류가 사람을 복제할 때면 바로 외계인을 받아들여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한다. 바로 사람이 신(神)의 일면의 존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 사람은 그래도 그의 이 무절제한 추구, 이 이른바 탐구란 용어가 듣기 좋다고 여기지만, 사실상 인류를 훼멸하고 있으며, 사람이 스스로 훼멸하고 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주라고 생각한다. 나는 당신들에게 얼마나 되는 층의 우주, 얼마나 되는 층의 우주의 개념을 말했다. 더 위로 말하려면 또 우주를 초월한 그런 개념의 층차로 말해야 하는 것으로서 나는 그것을 천체(天體)라고 부른다.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말한 용어와 인식개념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천체는 내가 말하는 천체와 또 같은 일이 아니다. 그럼 이 천체 중에서 부동한 우주 속에 또 부동한 공간이 있으며 그 부동한 공간 속에 물론 자신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공이다. 부동한 시간에 존재하는 이 공간을 곧 부동한 시공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표면으로 인식한 개념이다.

제자: 대법이 사회에서 널리 전해짐이 바로 우주의 법리가 인간에서 재현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함이 맞습니까?

사부: 그렇다. 하지만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큰 법리가 인간에서 재현된 것이 아니고 천지개벽 이래 있은 적이 없으며 우주가 천지개벽한 이래 처음이기 때문이다. (박수)

제자: 미국 사람이 공(功)을 배우기 시작할 때 음악 테이프 구령에 영문 동시번역을 배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데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당신들은 대법제자로서 대법에 따라 수련해야 하며 오로지 이래야만 가장 빠르다.

제자: 사람의 개성과 근기는 관계가 있습니까?

사부: 만약 당신이 후천적으로 괴상한 습관을 양성했다면 그것은 개성이 아니며 그것은 당신의 집착으로서 이는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어떤 사람 그는 확실히 자신의 특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 그는 행동이 빠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느릿느릿하거나 혹은 본성적으로 서로 간에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그의 본래의 것이다.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을 말하자면 예컨대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곧 이렇게 하기 좋아하므로 나는 곧 이렇게 하고, 나는 저렇게 하기를 즐기므로 나는 저렇게 한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집착, 고질적인 버릇을 자신의 개성과 성격으로 간주한다면 이것은 틀린 것으로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제자: 우주·천체·시공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부: 우주·천체·시공의 개념은 이 세 용어부터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류의 언어는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통상적으로 이 우주란 바로 눈으로 본 것과

제자: 불교계의 어떤 사람들은 대법이 정도(正道)가 아니라고 공격합니다.

사부: 그것을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말법 최후시기에 도달했다. 이런 문제에서 만약 우리가 그들의 방법을 취하여 그들이 대법을 공격한다고 해서 당신들도 자료를 배포하여 그들을 공격한다면 대법은 그들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는가? 우리 대법은 우주 대법이다. 당신은 그들이 파괴한다고만 보지 말라.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해 석가모니가 나타나자 브라만교 역시 이렇게 했다.

제자: 미시적인 부분에서 거시적인 부분을 향해 연화(演化)하는 이 과정은 本體(번티)가 전화되는 과정이 아닙니까?

사부: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다. 수련이 빠를수록 전화됨이 더욱 빠르다.

제자: 왜 우주의 일정한 범위 내의 다른 많고도 많은 공간에 그가 동시에 있습니까?

사부: 이 우주는 바로 이렇게 복잡한 구조이다. 당신이 태어날 때 많고도 많은 공간 중에도 당신이 모두 탄생한다. 생김새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하며 일하는 것도 대동소이

하고 당신과 같은 이름을 부르고 동시에 출생(出生)하고 동시에 사망한다. 하지만 생활의 질(質量)에서 같지 않다.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방금 내가 말했다. 동시에 태어나고 동시에 죽는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무슨 큰 연계가 없다. 내가 방금 말했다. 비록 동시에 태어난다고 하지만, 바로 그들이 모두 태어나지 않으면 당신이 태어나고자 해도 여전히 태어나지 못하며, 그들이 다 죽지 않았는데 당신이 죽으려고 해도 역시 몹시 어렵다. 그러므로 그 고혼야귀(孤魂野鬼)가 전생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은, 바로 모든 그가 다 죽지 않았는데 유독 그중 하나가 자살하여 기어코 죽으려고 한 것으로 죽은 것은 갈 곳이 없으며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생명의 과정을 다 걸어야만 비로소 함께 그 귀속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元神(원선)에 대해 말한다면 방금 나는 이미 말했다. 元神(원선) 그것이 바로 당신이며 主元神(주원선)이 바로 당신 자신인 것으로, 당신 사상의 내원(來源)이 바로 당신이다. 원영(元嬰)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수련 중에서 당신의 지혜와 법으로 생긴 불체(佛體)이다. 우리 이 법은 또 사람의 신체로 하여금 본질적인 개변이 발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신체 자체도 불체로 전화될 수 있다.

속에 있으면서도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표합니까?

사부: 이 연화(蓮花) 그것은 인간의 공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 연꽃(荷花)이 연화(蓮花)인 것 같다고 여기지만, 연화가 아니다. 연화는 부처 세계에서 생긴 것으로서, 연화는 부처 세계에서 결코 일종의 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과위와 부처의 위덕으로 여긴다. 연화(蓮花)는 사람 개념 중의 꽃이 아니지만, 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지금 불교 중에서는 연꽃(荷花)으로 성결(聖潔)을 비유한다. 진흙탕에서 나왔지만, 오염되지 않고 진흙 속에서 자랐지만, 오염되지 않고 그렇듯 깨끗하고, 성결하다는 것이다. 한 가지 비유로 간주한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부처의 연화가 아니다.

제자: 수련과정 중에서 층차의 진전과 돌파를 어떻게 감수할 수 있습니까? 제 신체는 늘 반복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부: 이건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어느 층차로 수련되었는지 느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인가? 이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말할까, 그처럼 많은 사람에게, 또한 자세한 상황을 매 사람에게 말해 준다는 것은 첫째, 불가능하고, 둘째, 이로써 형식상의 것에 집착할 것이므로

는 이것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내가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대법을 전함으로써 부차적으로 생긴 작용이다.

제자: 사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로지 사부님 한 분만이 이 세상에서 法輪功(파룬궁)을 전하고 계시며 다른 사람 그는 감히 내려와서 전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부: 그렇다. 나는 바로 法輪世界(파룬쓰제)의……, 法輪世界(파룬쓰제)는 내가 육성한 것이다. (박수) 대법을 전함은 오로지 나만이 전하고 있으며 사실 또 다른 사람이 없다. 당신이 상상하는 이 개념마저도 없다.

제자: 저희는 늘 방금 한 생각이 틀린 것을 곧 느끼게 됩니다.

사부: 그러면 좋다. 비록 당신 자신의 主意識(주이스)가 각자(覺者)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지만, 매번 그릇된 염두가 나타나면 즉시 그것을 포착하는데, 그것이 그릇되었음을 아는 것은 당신의 수련이 잘된 그 부분 사상이 이미 아주 강해져 그것이 작용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 좋지 못한 사상이 나오기만 하면 곧바로 의식하고 그것을 잡는다.

제자: '연(蓮)'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수련인이 진흙탕

제자: 사부님께서는, "아마 당신이 득도할 때 장래에 많은 사람이 모두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부: 그렇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만약 한 사람이 부처로 수련 성취했다면 그의 부모·형제 중 그의 부모를 말하자면, 이렇게 좋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에게 복이 없겠는가? 틀림없이 있다. 이 복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를 어디로 배치해야 하는가? 틀림없이 그의 복의 크고 작음에 따라 할 것이다. 그가 원만을 이뤄 부처가 되었다고 부모가 수련하지 않고도 부처가 된다는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과 心性(씬씽)에 따라 정해지는데 업력의 대소도 아주 중요하다. 그럼 이 속에는 단지 부모, 형제뿐만이 아니며 또 무슨 그가 인간 세상에서 접촉한 많고 많은 사람과 생명 및 원연(怨緣)을 포함한다. 당신이 죽인 생명을, 당신이 부처로 성취되었는데 당신이 죽인 그러한 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신은 그것을 제도해야 한다. 물론 이런 일은 당신이 원만을 이뤄 수련 성취되었을 때 사부가 모두 당신에게 해주는 것으로서 역시 당신이 제도한 것으로 친다. 왜냐하면, 당신의 세계로 제도해야 하기 때문인데, 바로 이렇게 당신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리고 또 이전에 당신으로 하여금 이득을

보게 한 아주 많은 사람이 있다면 이런 것도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바, 여러 방면의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 수련도 간단한 일이 아닌 만큼, 당신 자신이 많은 일, 그 여러 가지 인연관계를 풀지 못하므로, 이런 것도 다 사부가 해준다.

제자: 사부님께서 각지의 일부 수련생들을 접견하시게 되면 사람마다 모두 빠지려고 하지 않는데 집착이 아닙니까?

사부: 아마 오늘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내가 중국에서 법을 전할 때 수련생들은 모두 알고 있는데, 아마 당신들도 들었을 것이다. 수련반 첫날 사람들은 모두 앞줄을 찾아 앉으며 사부님과 가까이 앉아야 에너지를 받는 것이 크다고 했다. 3일째 수련반이 결속될 때 앞으로 다가서는 사람이 더는 없었다. 여러분들은 모두 좋은 자리를 나이가 많은 분이나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고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온 회의장은 상화(祥和)한 상태를 이루었다. 사람은 다 변화되는 과정이 있게 마련이다. 물론 우리 오늘 많은 사람이 외지에서 왔거나 오랫동안 나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서서 사부를 똑똑히 보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일을 백인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 총체적으로 이

장래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지킨다 해도 그의 인심이 예전만큼 좋지 않다면 여전히 나쁜 짓을 할 것이다. 경찰도 사람이라, 그 경찰 자신조차 나쁜 짓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 법관 역시 속인이라, 그 법관 역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데, 누가 단속할 것인가?

내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얼마나 많은 법률을 제정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규제하고, 제약하며, 단속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의 선한 마음을 깨우쳐 인류사회로 하여금 진정으로 고상(高尚)해지게 하는지에 있다. 사람에 대한 어떠한 외재적인 제약이든 모두 인심을 제약할 수 없다. 즉 그것은 근본을 다스리지 못한다.

나는 인류에 대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 물론 이런 일은 비록 내가 말했지만, 현재 나는 인류에 대해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으며 상관하지 않는다. 정치적인 일을 나는 간섭하지 않으며 사람이 말하는 소위 정치에 대해 나는 전혀 좋아하지 않고 듣지도 묻지도 않는다. 인류의 일을 나는 모두 똑똑히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나는 단지 수련하는 수련생들을 위해 책임질 뿐이다. 그러나 더욱 많은 사람이 수련을 잘하면, 이 강대한 바른 힘이 사회로 하여금 일부 개변을 발생하게 할 것인데, 인심이 선을 향하고 사회가 안정되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가 속인의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눈에 거슬려 하며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도 역시 사람 중의 한 분자로서, 이 법률이 자신도 단속하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최후에는 사람을 숨돌릴 곳마저 없게 봉폐해 버리는데, 이에 대처할 아무런 방법도 없다. 그때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인심(人心)이다. (박수)

어느 국가든지 사회의 동란요소와 불안정 요소에 모두 골머리를 앓는다. 예컨대 사회치안 등 문제를 다스릴 방법이 없다. 그들은 모두 이런 좋지 않은 현상에 대해 법률을 제정하여 그것을 다스리고자 생각한다. 이 법률이 갈수록 많아지지만, 법률이 보지 않을 때 사람은 여전히 나쁜 짓을 할 것이다. 사실 그들 누구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데, 바로 인심을 다스리고 인심으로 하여금 선(善)을 향하게 하는 것뿐이다. 인심이 좋게 변한다면 그처럼 많은 법률도 필요 없으며 경찰이 없어도 사람은 예전처럼 모두 법을 어기지 않는다.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단속하면 경찰도 필요 없다. 당신이 보라.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이겠는가. 이렇지 않은가? 경찰이 많아서

것도 모두 표면적이다.

제자: 노수련생들은 心性(씬씽)이 높고 공력이 갈수록 커지므로, 그들의 언행은 신수련생에 대해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신(新), 노(老) 수련생들은 마땅히 각자 어떻게 파악해야 합니까?

사부: 노수련생들 대부분은 수련을 아주 잘했다. 그러나 노수련생마다 다 그렇게 잘했다고 말할 수 없다. 나 또한 당신이 표준에 부족하므로 당신에게 연공하러 오지 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많은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법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신수련생도 여러 차례 법 공부를 한 다음 역시 법으로 일체를 대조할 것이며, 당신이 노수련생이라도 어느 곳에서 잘못했는지 신수련생 역시 알 것이다. 사람은 사상이 있는 것이며 또한 법이 있는 것이라, 이러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도 모두 이렇게 지나왔다. 보도원으로서, 노수련생으로서 아마 이 문제를 걱정할 것이다. 출발점, 생각은 모두 좋다. 만약 당신들이 문제를 발견했다면 방법을 찾아 해결하도록 하고 되도록 여러분이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때문에 노수련생으로서 확실히 신수련생 앞에서 당신들은 마땅히 자신을 좀 주의해야 한

다.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대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는 정토(淨土)이다. 나는, 당신들이 모순에 부닥쳤을 때 자신의 내심에서 찾지 않고 마치 사회상의 직장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제자: 수련하기 전 어느 날 저녁에 저는 몹시 추운 것을 느꼈으며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부: 내가 말하는데 개인의 상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당신 한 사람만 해도 천만 가지, 억만 가지 상태로, 이렇게 많은데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답해 주겠는가?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모두 좋은 일이다. 나는 어제 한 가지 문제를 말했다. 당신 자신의 감각이 좋든 나쁘든 사실 당신은 그 실질을 확실히 분간하지 못한다.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만, 알려주겠다. 당신은 그것을 모두 좋은 일로 간주하면 된다. (박수) 내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인류사회의 흙(土)이란 그것은 고층 생명의 대소변이다. 사람이 이처럼 더러운 환경 속에 있는데 마치 사람이 모두 똥통 속에 뛰어든 것과 같다. 모두 똥통 속에 있으면서 그래도 여기는 좀 편안해서 좋고, 저기는 불편해서 좋지 않다고 한다. 당신이 아직도 이런 것을 중시해서는

보아야 합니까?

사부: 이 문제는 대단히 넓다. 인류는 각 방면에서 모두 이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내가 가장 간단한 예를 들겠다. 예를 들어 지금의 이 법률에 대해 말해 보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대에는 법률이 없었다. 사람의 마음이 모두 비교적 선량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처럼 많은 법률로 그를 규범화할 필요가 없었다. 그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아주 잘했다. 지금은 인심이 모두 안 되며 모두 좋지 않게 변했기 때문에 그처럼 많은 법률을 제정하여 사람을 단속하고 있는데, 마치 동물을 관리하는 것처럼 사람을 단속하고 있다. 그것은 무형의 새장이다. 그러나 사람은 여전히 좋지 않게 변하고 있다. 이 법률을 아직도 끊임없이 제정하고 있는데 최후에는 어떤 정도로 제정할 것인가? 법률이 많기로, 사람이 죄를 범하고도 자신이 모를 정도로 너무 많아서, 기억하지도 못한다. 그렇게 나아가면 최후에는 사람이 움직이기만 해도, 당신이 문만 나서도 법을 어기게 될 것인데, 이런 정도에 도달하지 않겠는가? 인류는 끊임없이 자신을 봉폐하고 있는데, 단지 법률뿐만이 아닌 여러 분야의 모든 면에서 모두 자신을 봉폐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봉폐되어 사람은 어찌할 방법도 없으며 사람이 제정한 법률 그것이 도리어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한다.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사람을 대신하여 속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제자: '동수(同修)'라는 단어는 일부 수련생들이 다른 수련생을 호칭할 때 늘 쓰고 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이 단어를 언급하지도 않으셨으므로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불교 중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사부: 이는 세인(世人)들이 부르는 용어로서, 불교 중에서만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전문용어도 아니다. 사실 그것들의 전문용어는 전혀 동수라고 부르지 않는다. 역시 나중 이 몇 년간에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만들어 낸 것이다. 우리로 말한다면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지 괜찮다. 대법은 표면 형식상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며 최대한도로 속인에 부합되어 수련한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묻기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라고 하였다. 나는 어떻게 불러도 된다고 말했다. 우리가 일부 독특한 용어를 다 규정해 낸다면 남들은 정말로 우리를 종교라고 여길 것이다. 우리는 속인들의 이 방면의 형식과 좀 어울리는 것이 비교적 좋겠다.

제자: 사람 자신이 자신을 봉폐했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뭘 하겠는가? 당신은 빨리 수련하고 무엇에 부딪히든지 다 좋은 일로 여기라. 역시 정말로 좋은 일이다. 당신이 수련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절대로 이런 감각이 없을 것이다. 불편한 감각을 포함해서 아무리 좋은 변화가 당신의 신체에서 반영되어 나와도 당신은 다 편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공과 에너지의 존재도 모두 전기가 있기 때문인데, 당신의 신체에 반응이 있을 것이다. 공은 그처럼 강한데 당신은 또 사람의 신체가 있는지라, 신체 속에서 움직인다면 몸은 물론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당신의 수련이 다 잘 되었을 때면 그런 감각이 없다. 어떤 사람은 공중으로 뜰 때 공중에서 어떤 상태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다 상관하지 말라. 모두 좋은 일이다. 두려워할수록 당신의 높이를 몇 번 꺾어 놓는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잘못이기 때문이다.

제자: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면서 또 무사무아(無私無我)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부: 여러분 생각해 보라. 사람이란 한 개체 생명이다. 당신이 무사무아(無私無我)해서 자신의 수련마저도 하려 하지 않고 반본귀진(返本歸眞)마저도 다 없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정말 무아(無我)이다. 당신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면 당신의 수련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당신들은, 수련과정 중에서 자신을 갈수록 선(善)하게 수련하여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모두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정도로 선해진다면 무사(無私)한 생명으로 수련 성취된다. 수련 역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으로서 당신이 수련하여 원만에 이르는 동시에 당신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생명으로 수련 성취된다. 개체 생명은 영원히 존재해야 한다. 여러분이 수련하고 한다는 것이 최후에 자신의 개체마저도 없어진다면 이 어찌 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당신이 되돌아 올라오려 하고, 원만을 이루려 한다면 상대적으로 당신이 치른 대가는 당신에게 무한한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므로 그것은 당신 자신이 대가를 치러 얻은 것이다. 더욱 높고, 더욱 아름다운 그 경지 중으로 되돌아가는 그것은 선을 향하고, 향상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무위(無爲)를 자기가 없게 되고 자아의 존재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사실 전혀 그런 일이 아니다. 우주는 층차가 있다. 엄격히 말해서 생명은 등급이 있다. 그것은 당신이 수련하여 증득한 과위와 위덕(威德)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사부: 이런 일이 아니다. 깊이 떨어질수록 더욱 희망이 없다. 만약 대법이 널리 전해지지 않았다면 그럼 곧 끝장이다.

제자: 사부가 제자에게 소업(消業)해 주는 이런 일이 왜 종교수련 중에는 모두 그리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부: 무엇 때문이 아니다. 왜 예수가 말한 것과 석가모니가 말한 것이 같지 않은가? 왜 사람마다 모두 같아야 하는가? 석가모니는 소업 문제를 말한 적이 있으며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현대불교 중에서도 소업을 말한다. 석가모니는 49년 설법 중에서 아주 많은 것을 말했지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계승되지 않았다. 후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 보았다. 마치 어떤 수련생이 법을 골라 보면서 이 한 편이 좋다고 느끼면 나는 이 한 편만 보겠다는 것과 같다. 그가 이것을 이해하면 그는 곧 계승하고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관념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는 곧 계승하지 않았다. 석가모니가 그 해에 법을 전할 때 문자가 없었고 500년 후에야 비로소 석가모니가 한 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500년 동안 구전(口傳)되어 오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이 있었겠는가?! 불교 중에서도 소업을 말하는데 당신이 모를 뿐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제자: 다리가 뻣뻣한 것은 업력이 크기 때문에 조성된 것입니까?

사부: 이것을 나는 다 말한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은 업력이 있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그가 이 다리를 여태껏 이렇게 구부려본 적이 없으므로 다리가 뻣뻣하다. 이것은 신체의 표면에서 오는 생리 상태이다. 하지만 업력이 크든지 생리 면의 요소이든지 모두 다리를 틀 수 있다. 아프지 않은 것을 말하자면 이런 경우는 아주 적다.

제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법을 얻은 사람의 숫자가 이미 1억이 넘는데 홍법이 여전히 예전과 마찬가지로 중요합니까?

사부: 홍법을 당신은 그렇게도 하기가 싫은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련 중에서 선(善)을 닦게 되는데 사람이 난(難) 중에 있는 것을 보면 그를 도와 법을 얻게 하려고 한다. 이것은 당신들이 수련 중에서 점차 갖춰야 할 것이다. 사람에게 다른 무엇을 준다 해도 법을 주는 것만 못하다. 그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그에게 주는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에게는 역시 일세일시(一世一時)의 행복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에게 법을 준다면 곧 생명의 영원한 행복으로서 그 무엇이 법보다 더 좋을 수 있겠는가! (박수) 그

제자: 저희는 主元神(주원신) 수련인데 왜 한 기간 시간을 두고 주위의 일체가 모두 낯설고, 괴상하게 변합니까?

사부: 이 감각은 또 이런 상황이 있다. 만약 당신 사상의 어느 한 부분이 깨끗하게 씻겼거나 당신의 사유방식을 개변시켰다면 역시 이러한 상황을 가져올 것이다. 어쨌든 당신은 모두 당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신이라는 것을 안다면 문제가 없다.

제자: 『전법륜』에서 이미 아주 똑똑하게 말했기에 다른 사람과 심득을 토론하고 교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부: 그것 역시 당신 자신의 수련상태이다.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 당신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매 사람은 모두 부동한 상태가 있게 마련이다. 신수련생도 끊임없이 들어오므로 당신들은 한 곳의 정토가 있어야 한다.

제자: 속인 속에 더욱 깊이 떨어졌지만, 되돌아 올라갈 수 있다면, 수련 성취된 후의 위덕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러므로 나는 법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그 자체가 바로 홍법이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들은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그가 배우지 않는데 당신들이 그에게 기어코 배우라고 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 당신들이 홍보했고 그로 하여금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했으면 된다. 그가 수련하고 안 하고는 그 자신의 문제이다. 많은 사람이 수많은 홍법 일을 했고 오랜 시간을 사용했는데 절대 의의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당신이 지체한 시간은 모두 수련 중에서 당신에게 보충해 줄 것이다. 필경 당신은 대법을 위해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신들이 앞으로 여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억지로 사람을 끌지 말아야 하며 당신들이 편리한 방식을 통해 그에게 알게 하면 된다. 알고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

제자: 『명지(明智)』 경문 중에서 반드시 사상업과 정상적인 좋지 않은 염두를 똑똑히 분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부: 그렇다. 속인은 사상업의 교란을 똑똑히 분간하지 못한다. 수련인이 정진하지 않고 자기 사상의 근본적인 동기를 찾지 않는다면 역시 해내기가 어렵다. 왜 어떤 사람은 그의 그 사상업력이 장기적으로 없어지지 않는가? 바로 어

제자: 저희가 모두 스승님의 신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부: 이것을 당신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박수)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사람이 수련하는 중에서 당신의 신체는 모두 끊임없이 체적이 증가하고 있다. 사람이 이 공간으로 떨어져 내려왔으므로 되돌아가야 하며 수련해서 되돌아가야 하므로 신체는 개변되어야 한다. 가장 미시적인 데에서 시작하여 개변하는데 그는 반드시 우주의 미시적인 그 층차의 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가장 미시적인 데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그의 신체의 체적은 본래의 그 공간의 상태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래서 크게 변한다. 미시적일수록 체적이 더욱 크다. 수련하는 사람마다 모두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인데, 속인은 당신의 변화를 보지 못하며 보지 못 하게 한다. 많은 수련생이, 사부님 몸 뒤의 신체는 층층이 헤아릴 수 없으며 사부님의 신체가 어찌하여 층층 층층, 한 층이 한 층에 비해 크고 어떤 것은 변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데 일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당신이 말해 보라.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구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 뜻이다. (박수)

느 것이 자신인지 똑똑히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당신에게 수련하라고 하는가? 우선 당신은 좋지 못한 사상 그것을 닦아 없애버려야 한다. 당신이 그런 좋지 못한 것을 제거할 수 있음은, 당신이 그것을 당신이라고 승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지극히 중요하다. 당신이 그것을 당신이라고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그것을 없애버릴 수 있다. 사실 그것은 정말로 당신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후천적으로 일하면서 형성한 각종 관념이고 진일보로 형성된 업력,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러나 사람은 흔히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이 사상은 총명하여 사회상에서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는 여러 면에서 모두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러한 후천적으로 생긴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고 또한 심지어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긴다. 사람이 무엇을 갖고자 하는 그것은 그 자신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신이 이것을 갖지 않으려고 해야만 당신에게서 제거해 줄 수 있다.

왜 정신병 환자는 제도하기가 어려운가? 바로 그가 확실하게 분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상업력을 뚜렷이 분간할 수 있고, 어느 사상은 내가 아님을 뚜렷이 분간할 수 있음은, 신수련생으로서는 몹시 어렵다. 해냈다면 정말로 대단하다. 대법으로 가늠하라. 사실 모든 좋지 않은 사상은 모두

쉽지 않으므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수련하고 안 하고는 사람 자신의 문제이다. 대법이 아직 많은 지역으로 널리 전해지지 않았으므로 장래에 법을 들을 수 있게끔 또 그의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데, 그때에 가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본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법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주 중요하다. 내가 말한 뜻은 바로 당신들이 홍법할 때 사람에게 법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가 수련하고 하지 않고는 그 개인의 문제이다. 당신이 이 일세에 와서 불법(佛法)을 만나고 들었는데 당신이 상관하지 않고, 수련하지 않고, 배우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유감이다! 방금 당신이 질문한 문제는 바로 업력이 이처럼 큰데도 왜 생명이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연장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바로 이런 까닭이다.

제자: 노수련생의 집에 여전히 사부님의 사진으로 개광한 관음 등의 상(像)이 있는데 맞습니까?

사부: 그들은 모두 위대한 신이기 때문에 이건 다 상관없다. 개광했고 당신이 모셔놓았다면 그만이다. 당신 자신은 마음속으로 어느 한 문(門)을 수련하는지 알아야 한다. 당신이 누구를 공경하려고 하는지는 당신 자신이 마음속으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이 점을 해낼 수 있다면 곧 뚜렷이 분간할 수 있다. 오, 이 사상은 좋지 않으니 마땅히 없애버려야 하고 제거해야 한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 자체가 바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닌가. 당신들은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 살인 방화하고, 심지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당신은 그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했다고 여기는가? 이는 그가 후천적으로 형성한 부정확한 관념이 갈수록 강하고 더욱더 강해져, 그의 그 관념이 이 사람을 반대로 주재했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변했다.

제자: 사람을 제도하는 각자는 통상적으로 여래인데, 어떻게 물질의 본원에서부터 수련자에게 공을 연화(演化)해 줍니까?

사부: 나는 여태껏 당신에게 이렇게 알려준 적이 없다. 나는 석가모니가 이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여래법(如來法)과 우주 대법은 서로 비교할 방법이 없다. 일반적인 신(神)은 장래에도 이 점을 해내지 못하며 그것 역시 과거에 어느 신도 해내지 못했다. 과거에는 사람을 제도하는 법이 작았고 사람을 제도함에, 그는 다른 여래 혹은 더욱 높은 신의 도움을 빌려서 했다. 그도 하늘을 숭배하고,

것이다. 부처의 세계 속은 부처와 보살만이 아니고, 번영한 세계이다. 부처는 법왕(法王)이며 선(善)하다. 바로 이런 상황이다. 만약 당신이 사람의 사상으로 하늘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알아내지 못하며 당신의 온 머리에 다 이런 것들이라면 당신은 수련할 방법이 없다. 나는 당신들에게 그처럼 큰 천체(天體) 그것이 단지 한 알 먼지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 우주가 복잡하기란 그것을 형용할 방법이 없으며 말할 방법이 없다. 당신이 지상에서 본 백인·황인종·흑인 인종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그 천체 중에는 각종 인종이 아주 많으며 각양각색인데, 또 무늬가 있는 인종도 있다. 바로 이 우주는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하다.

제자: 인류의 업력은 쌓일수록 더욱 많은데 왜 평균수명은 여전히 연장되고 있습니까?

사부: 여러분은 아마 지금의 사람 수명이 원래의 사람 수명보다 긴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대법이 널리 전해지지 않는가. 사람으로 이 일세(一世)에 왔다는 자체가 바로 그의 행운(造化)이다. (박수) 내가 제도하려는 것이 사람인바, 나는 틀림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대법이 널리 전해지는 같은 일세(一世)에 왔고, 이 대법을 만나기도

을 조종했다. 지난번에 내가 초물질을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속에 숨어 있기에 발견하기가 몹시 어렵다. 사람은 다만 현존하는 분자만이 가장 물질적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또 분자보다 더욱 물질적인 것이 있으며 외계인은 거기에 숨어서 사람을 조종했다. 우리는 그 공간을 이미 해결했으며 그곳을 모두 깨끗이 제거했다.

제자: 出世間法(추쓰젠파)는 바로 나한과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여전히 중생으로 됩니까?

사부: 당신은 법에 대해 아직 자세히 보지 않았고 자세히 이해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수련하고 있지만, 그가 수련 성취하지 못하고 다만 삼계 중에서 어느 한 층차에 도달했다면 바로 삼계 중의 어느 한 층차 중에서 생존하게 된다. 천상의 사람, 천인(天人)을 사람에 대해 말한다면 그 역시 신이다. 만약 이 사람이 삼계를 벗어났다면 첫 번째 과위에 도달한 것이 바로 나한이다. 또 한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다. 바로 이 사람 그가 수련하지 않았지만, 그도 아주 좋은 표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그는 과위가 없고 그는 아마 이 부처와 인연이 있거나 당신들 이 자리에 앉은 어느 사람이 장래에 수련 성취될 부처와 인연이 있을 것인데, 아마 당신 세계 속의 중생, 바로 당신 세계 속의 백성이 될

더욱 높은 신을 공경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여래 부처가 제일 큰 것이 아니며 그런 것이 아니다. 법이 작으므로 사람을 제도함에, 한 생(生)에 이 사람을 제도하지 못하고, 몇 생(生) 동안을 제도해야만 비로소 제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법(大法)은 할 수 있다. (박수) 왜냐하면, 그는 우주 대법이며 일체 법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일체 법은 모두 수련하는 대각자(大覺者)가 우주 대법 중에서 증오(證悟)해 낸 것이다. 당신들이 이 관계를 똑똑히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다. 사람을 제도하는 일체 각자(覺者) 혹은 하늘의 모든 여래·부처·신의 그들 자신 세계의 특성 또는 그들이 얻은 과위는 모두 그들이 우주 대법 중에서 증오(證悟)해 낸 것이다. (박수) 그들이 우주 대법 중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들이 우주 대법을 아는 것을 아예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만 부동한 층차 중의 생명은 그 부동한 경지의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해를 증오(證悟)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이 표준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증오(證悟)한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가 증오한 것을 '계(戒)·정(定)·혜(慧)'라고 부른다. 내가 이 문제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는가? (박수) 그들은 우주의 법에 따랐고 더욱 높은 신이 그

들을 도와줌에 따른 것으로서, 그들 자신만으로는 해낼 수 없다.

그 밖에 여래 부처라 해도 다 같지 않다. 석가모니 부처도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평범한 여래가 아니다. 그는 이 경지 중에서는 여래이지만, 사실 그는 또 더욱 미시적이고, 다른 부처가 모르는 상황이 있다. 그가 온 층차는 대단히 높다. 그는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四大)를 증오(證悟)했다. 과거에 당신들 어떤 사람은 경서 중에서 아마 이 용어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층차는 이미 상당히 높은 것으로서, 일반 생명이 존재하는 천체(天體)를 훨씬 넘어섰다. 그는 대단히 높게 증오했다. 이는 곧 그가 온 곳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나 그는 다만 여래 이 경지 중의 법력(法力)으로 사람을 제도했을 뿐이다.

제자: 인류사회가 변이(變異)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대부분 속인의 분자세포가 이미 외계인에 의해 개변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부: 사람이 말하는 생명과 인체 물질이 바로 이 신체를 구성한다. 사상의 변이(變異)는 사람의 행위와 생활방식을 개변할 수 있고, 생활방식은 또 사람 신체의 입자 성분을 개변할 수 있다. 만약 이런 변이가 수동적이고, 어떤 한 생

물에 의해 조종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너무나 두려운 것이다. 왜 사람은 후천적으로 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가? 이 관념이 또 역으로 사람을 주재할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 그것을 제거해 버리지 않으면 이 일생 중에서 그것은 당신의 일부분이 되며 심지어 당신을 주재하는 일부분이 된다. 다시 말해서 외계인이 지구인에게 강요한 이 한 세트의 문화는 당신의 사상 중에서 완전히 한 세트의 생활과 물질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데 이미 바로 이러하다. 그럼 그것에게 이것이 있다면 이런 신체로 발전될 수 있다. 이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하는가? 당신은 그것의 방식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 기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것이 만들어낸 것을 당신이 어떻게 다루겠는가? 이 일련의 것이 사람의 일체 생활방식을 관통하여 이런 신체, 이런 사상, 이러한 것들을 형성한다. 지난번에 나는 컴퓨터를 조작하는 모든 사람은 외계인이 모두 그에게 번호를 달아주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제자들에게는 이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모두 깨끗이 제거해 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이 외계인을 마지막으로 깨끗이 제거하는 중이다. 아직도 숨어있는 것이 있지만, 이미 보기가 아주 드물다. 예전에 그것들은 그 초물질(超物質)적인 공간 속에 숨어서 사람